

새둥지화를 통한 청소년의 부모애착수준 타당화 연구*

The Validation of the Estimate Adolescents' Parents Attachment level by the Bird's Nest Drawings

김갑숙** · 전영숙
영남대학교

Kim, Gab Sook · Jeon, Young Sook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BND test was an appropriate tool for diagnosis of attachment security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 of responsive Characteristics to the Bird's Nest Drawings according to parents attachment degree. The subjects in the study were 525 students, selected from senior high schools in D-city. The instruments used were parents attachment scale and Bird's Nest Drawings, and Discriminant analyses and crosstab analyse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indicators in the Bird's Nest Drawings discriminated according to group of parents attachment. Second, for male stud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placement nest, eggs, entire birds family, quality of line and tree picture according to attachment to father. For female stud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eggs, entire birds family, quality of line and tree picture according to attachment to father. For male stud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nest contents, placement nest, eggs, entire birds family, quality of line and tree picture according to attachment to mother. For female student, placement nest, space, nest size, eggs, entire birds family and quality of line according to attachment to mother.

Key Words : Adolescent, parent attachment, Bird's Nest Drawings. validity

I . 서론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감정적 유대관계를 뜻한다. 애착이 발달하는 시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 (Hertherington & Parke, 1993)하고 있다. 첫째단계는 생후 2주간에 해당되며, 영아가 특정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애착을 보이는 단계이다. 둘째단계는 6-8개월 까지 지속되며, 영아가 어머니와 타인을 구분하면서 상호 애착의 기초가 형성되지만, 애착대상과 떨어지는데 대한 저항을 보이지는 않는 시기이다. 셋째단계는 '낯가림' 현상

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애착대상과 떨어질 때 격리불안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애착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일생에 걸쳐 중요한 심리적 결과를 남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Bowlby(1973, 1980)는 애착대상자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은 유아기에 형성되며 이는 유아 자신의 자아를 포함하여 세상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애착에 관한 연구(Main & Goldwyn, 1988)에서, 인간은 생의 초기에 애착 대상자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그의 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애착유형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로 세대 간에 전달된다는 연구

* 본 연구는 200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207-A-235-301).

** Corresponding author: Kim, Gab Sook

Tel: 053) 655-2152, 016-551-4718

E-mail: pinakim@ynu.ac.kr

(Ainsworth & Eichberg, 1992)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애착경험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자신과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정서적 경험이 성장한 이후 전 생애의 정서 발달의 토대가 되며 정서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한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문제 발생상황 시에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Kenny, 1987)고 했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 때 독립성도 더 잘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안정된 애착을 지닌 청소년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Armsnsden 과 Greenberg의 연구(1987)가 있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돋고, 심리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동향을 보면 애착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애착관련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관계, 애착과 자아존중감, 우울 및 비행, 건강효능감, 우울 및 외로움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정현희, 오미경, 1993; 홍주영, 도현심, 2002; 이경님, 2002; 이경님, 2003; 전효정, 2005; 탁영란, 이영은, 2004; 유안진, 이점숙, 2005),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성격,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애착의 측정에 있어서 Ainsworth는 낯선 상황을 사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영유아에게는 실험실 관찰방법이 많이 쓰였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질문지에 의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질문지에 의한 방법은 언어에 의한 방법이므로, 언어의 의식화 과정에서 이성의 겸열을 받게 되며(Brown, 1976),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Paulhus, 1981), 관계의 심충을 파헤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정현희,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기법인 '새둥지화(BND)'를 사용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진단을 시도하고자 하며, '새둥지화'가 애착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적절한지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Kaiser(1996)는 애착행동의 연구에 사용되는 질적 평가 도구로 '새둥지화(Bird's Nest Drawing; BND)'를 개발하였는데, '동적 가족화'보다 저항이 적어 애착행동의 임상 진단 척도로서 적절함을 입증하였다. 새둥지 상징에 기초한 치료적 개입은 애착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개인, 가족, 부부, 집단미술치료에서 발달되고 활용되어왔다.

BND를 통해 이끌어낸 관계와 친밀감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이해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구축하고 강화시키며, 불안정 애착의 회복을 돋는 인식과 통찰을 유도해낸다. 그래서 그는 애착유형의 치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 및 가족미술평가에 BND를 사용했다(Kaiser, 1996)고 하였다. 이 외에도 미술치료 시에 실시한 애착유형에 따른 BND의 반응차이 연구(Kaiser, Holt & Francis, 2001)와 물질남용 환자 집단과 정상집단의 애착수준 비교 및 BND 반응특성의 차이 연구(Francis, Kaiser & Deaver, 2003) 등을 볼 때, BND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치료로 애착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적은 실정이고, 특히 BND로 애착 정도를 진단한 연구는 이미애(2004)의 연구 정도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애착수준과 BND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례수도 40명에 불과하여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와 모에 대한 애착수준에 따른 BND 반응 특성이 어떠한지 밝혀보려 한다. 미국의 경우 아버지 애착이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불안정할 때 아버지 애착은 이를 보완해주는 좋은 방안이 된다(송명자, 1996)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안정애착은 서구에 비해 높은 경향인데 반해 아버지와는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박웅임, 1995). 최근 취업모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 아버지와의 애착이 더욱 요구되어지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성별에 따라 부모애착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민동, 2003; 배지영, 2007), 투사검사 결과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수현, 김갑숙, 2007; 김순란, 최외선, 2004; 김희선, 2006) 청소년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성별로 구분하여 부모 애착수준에 따른 BND의 반응특성을 밝히고, BND가 애착을 진단하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입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새둥지화는 부·모애착 진단도구로서의 타당성이 있는가?

둘째, 부·모애착 수준에 따라 새둥지화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은 대구시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표집은 대구시의 고등학교 1개학교의 1, 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7년 5월 20일에서 5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검사는 학급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실시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 과정에서 옆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지시켰다. 질문지는 총 560부를 배부하였으며 전량 회수되었으나 질문지의 내용에 응답이 빠졌거나, 질문지와 그림 중 하나라도 없는 것을 제외하고 총 52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193명(36.2%), 여학생 332명(62.3%)이었으며, 1학년 235명(44.8%), 2학년 290명(55.2%)이었다.

2.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애착척도검사와 새둥지화(Bird's Nest Drawing: BND)그림을 이용하였다.

1) 애착척도

애착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 상호신뢰, 소외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 애착, 모 애착 각각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따라서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모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39$ 이며, 부애착은 .948로 나타났다.

2) 새둥지화

새둥지화(Bird's Nest Drawing: BND)는 Kaiser(1996)에 의해 애착안정성 진단도구로 개발된 것이다. 준비물은 A4용지, 연필, 지우개와 12색 마커펜을 사용하였고, '새둥지를 그리세요'라고 지시하고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라고 대답하여 그림에 어떠한 단서를 주지 않도록 하였다.

BND의 애착지표는 Kaiser(1996)에 제시한 14개의 지표(둥지내용, 나무의 지지, 바닥유무, 담을 가능성(둥지의 기울기), 공간사용, 배치, 색상, 선의 질, 둥지크기, 아기 새, 부모 새, 아기 새 또는 부모 새, 두 부모 새, 알들 유무)와 Francis 외(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17개의 지표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23개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림은 채점준거에 따라 연구자와 미술치료 박사과정대학원생 2명이 함께 채점을 하였으며, 채점자간 일치도는 0.76 - 1.0사이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4.0 Program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새둥지화의 모애착의 진단도구로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애착정도에 따라 BND검사의 반응양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애착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애착진단도구로서의 새둥지화 타당성 검증

새둥지화의 애착지표가 부모애착진단도구로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BND 애착지표 23개 요인을 판별요인으로 하고 부애착, 모애착수준을 분류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분류변인인 부애착과 모애착 수준은 평균점을 기준으로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모애착의 평균은 $M=3.112$, 부애착의 평균은 $M=2.975$ 로 나타나 부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82명, 낮은 집단은 92명으로, 모애착수준은 높은 집단이 72명, 낮은 집단은 104명으로 분류되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표 2, 3에서와 같이 새둥지화의 변인들이 부 애착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71.3%였으며, 부 애착이 낮은 집단은 72.8%, 높은 집단은 69.5%가 이를 예측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판별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X^2=47.829$, $p<.001$), 새둥지화에서 둥지중심배치, 새가족 표현, 나무표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의 경우는 새둥지화의 변인들이 모 애착을 판별할

<표 1> BND 애착지표와 채점준거

지표		채점준거
동지내용	동지 안에 내용물이 있는가?	아니오/예
	동지 안에 알이 그려져 있는가?	아니오/예
	동지 안에 새가 그려져 있는가?	아니오/예
	동지 안에 알과 새가 있는가?	아니오/예
동지모습	동지는 위에서 본 모습인가?	아니오/예
	동지는 옆에서 본 모습인가?	아니오/예
동지배치	동지를 중심에 두었는가?	아니오/예
	동지를 가장자리에 두었는가?	아니오/예
기울기	동자는 기울어져 있지 않은가?	아니오/예
바닥	동지의 바닥이 있는가?	아니오/예
지지	동자는 지지받고 있는가?	아니오/예
동지크기	동지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용지의 1/3미만 / 1/3-1/2 / 1/2-2/3 / 2/3이상
공간사용	공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가?	용지의 1/3미만 / 1/3-1/2 / 1/2이상
새표현	새가 날고 있는가?	아니오/예
	양육활동이 있는가?	아니오/예
	알이 그려졌는가?	아니오/예
	아기새가 그려졌는가?	아니오/예
	부모새가 그려져있는가?	아니오/예
	전체 새가족이 그려져 있는가?	아니오/예
선의 질	부모새와의 거리는 어떠한가?	부모새 없음/떨어져 있음/한 둥지에 있음
	선의 질은 어떠한가?	약하다 / 보통 / 강하다
나무표현	나무가 그려져 있는가?	안그림 / 그림
색상	사용한 색의 수	사용한 색의 수(1~3색 / 4~6색 / 7색 이상)

수 있는 판별력은 67.2%였다. 모 애착이 낮은 집단은 72.1%, 높은 집단은 60.3%가 이를 예측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판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64.701, p<.001$), 새동지화에서 동지바다, 중심배치, 알 표현, 새가족 표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모애착의 평균은 $M=3.176$, 부애착의 평균은 $M=2.986$ 로 나타나 부애착 수준이 높은 집단이 137명, 낮은 집단은 167명으로, 모애착 수준은 높은 집단이 110명, 낮은 집단은 181명으로 분류되었다.

표 4, 5에서와 같이 여학생의 경우는 새동지화의 변인들이 부 애착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64.1%였으며, 부 애착이 낮은 집단은 62.3%, 높은 집단은 66.4%가 이를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판별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34.526, p<.05$), 새동지화에서 알 표현, 새가족 표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의 경우는 새동지화의 변인들이 모 애착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70.8%였다. 모 애착이 낮은 집단은 70.2%,

높은 집단은 71.8%가 이를 예측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판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X^2=64.701, p<.001$), 새동지화에서 빈둥지, 중심배치, 가장자리 배치, 등지크기, 알 표현, 새가족 표현, 색의 수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2. 부모애착정도에 따른 BND 반응특성의 차이

부·모애착 정도에 따라 새 동지화 애착 지표의 반응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애착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새동지화의 애착지표는 둥지 내용의 빈둥지, 알, 새, 알새의 4문항을 둥지내용으로, 등지모습의 위, 옆에서 본 모습의 2문항을 묶어 등지모습으로, 등지배치의 중심, 가장자리 2문항을 묶어 등지배치로 재구성하였으며. 색상 수는 1~3색, 4~6색, 7색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6, 7과 같다.

<표 2> 남학생의 부·모애착에 따른 새동지 판별분석

판별변인		부애착		모애착	
		비표준화 판별함수계수	표준화 판별함수계수	비표준화 판별함수계수	표준화 판별함수계수
동지 내용	빈동지	-1.217	-.393	-.587	-.191
	동지속 알	-1.974	-.837	-1.393	-.590
	동지속 새	.537	.262	.263	.128
동지 모습	위에서 본 모습	3.377	1.697	2.467	1.234
	옆에서 본 모습	2.944	1.480	2.399	1.201
기울기	동지 기울기	1.142	.211	.785	.144
바닥	동지바닥	.585	.002	-.753	-.348*
동지배치	중심	-.776	-.297*	-.667	-.253*
지지	동지 지지	.190	.126	-.065	-.043
공간사용	그림전체크기	.253	.257	-.200	-.203
동지크기	동지크기	-.078	-.101	.091	.119
새표현	나는 새	-.005	-.002	.021	.009
	양육활동	.062	.028	.120	.053
	알표현	.835	.396	1.326	.616**
	아기새 표현	-1.216	-.611	-.640	-.322
	부모새 표현	-.788	-.394	-.540	-.270
	전체 새가족	1.593	.724**	1.224	.551**
	부모새와의 거리	.403	.517	.151	.193
선의 질	선의 질	.859	.457	-.249	-.133
나무	나무표현	.697	.420*	.259	.156
색상	색의 수	-.048	-.082	-.013	-.023
상수		-6.725		-1.425	
Wilk's Lamda		.738		.797	
χ^2		47.829**		36.476*	
정준상관계수		.512		.451	
판별력		71.3%		67.2%	

* p<.05, **p<.01, ***p<.001

<표 3> 남학생의 부·모애착 분류결과

부모애착		예측소속집단				전체	
		낮은 집단		높은 집단			
		N	%	N	%	N	%
부애착	낮은 집단	67	72.8	25	27.2	92	100
	높은 집단	25	30.5	57	69.5	82	100
모애착	낮은 집단	75	72.1	29	27.9	104	100
	높은 집단	29	39.7	44	60.3	73	100

<표 4> 여학생의 부·모애착에 따른 새등지 판별분석

판별변인	부애착		모애착	
	비표준화 판별함수계수	표준화 판별함수계수	비표준화 판별함수계수	표준화 판별함수계수
등지 내용	빈둥지	3.753	.979	2.949
	등지속 알	4.016	1.590	2.838
	등지속 새	2.216	1.070	1.713
	등지속 알과 새	3.710	1.782	2.343
등지모습	옆에서 본 모습	.403	.200	.163
기울기	등지 기울기	.050	.012	-.419
바닥	등지바닥	.003	.001	-.370
등지 배치	중심	-.935	-.411	-.233
	가장자리	-.821	-.358	-1.213
지지	등지 지지	-1.552	-.763	-.078
공간사용	그림전체크기	.220	.214	.238
등지크기	등지크기	-.213	-.185	-.546
새표현	나는 새	.187	.075	-.227
	양육활동	.071	.035	.145
	알표현	-1.118	-.525*	-.691
	아기새 표현	.446	.222	.430
	부모새 표현	-.324	-.156	.518
	전체 새가족	-1.339	-.650**	-1.521
	부모새와의 거리	.282	.242	.069
선의 질	선의 질	-.480	-.252	-.297
나무	나무표현	.954	.478	-.469
색상	색의 수	.265	.180	-.060
상수		-1.077		.406
Wilk's Lamda		.897		.792
X ²		34.526*		64.701***
정준상관계수		.337		.456
판별력		64.1%		70.8%

* p<.05, **p<.01, ***p<.001

<표 5> 여학생의 부·모애착 분류결과

부·모애착	예측소속집단				전체			
	낮은 집단		높은 집단					
	N	%	N	%				
부애착	낮은 집단	104	62.3	63	37.7	167		
	높은 집단	45	33.6	89	66.4	137		
모애착	낮은 집단	127	70.2	54	29.8	181		
	높은 집단	31	28.2	79	71.8	110		

<표 6> 부·모애착정도에 따른 새동지화 반응특성의 차이

지표		남학생				여학생				통계량	
		낮은 집단		높은 집단		낮은 집단		높은 집단			
		N	%	N	%	N	%	N	%		
동지 내용	빈동지	16	15.1	7	8.4	$\chi^2=6.636$ df=3	16	8.9	10	6.9	
	알만	28	26.4	15	18.1		35	19.4	25	17.4	
	새만	42	39.6	34	41.0		61	33.9	60	41.7	
	알과 새	20	18.9	27	32.5		68	37.8	49	34.0	
동지 모습	위	50	48.5	43	51.8	$\chi^2=1.524$ df=1	73	40.8	67	47.2	
	옆	53	51.5	39	47.0		106	59.2	75	52.8	
동지 배치	중심	86	86.9	62	75.6	$\chi^2=3.814^*$ df=1	136	76.8	102	71.3	
	가장자리	13	13.1	20	24.4		41	23.2	41	28.7	
기운 동지	아니오	102	97.1	79	95.2	$\chi^2=.498$ df=1	171	94.5	136	93.2	
	예	3	2.9	4	4.8		10	5.5	10	6.8	
바닥 유무	아니오	34	33.0	27	32.5	$\chi^2=0.005$ df=1	43	23.8	34	23.3	
	예	69	67.0	56	67.5		138	76.2	112	76.7	
나무 지지	없음	56	53.3	34	41.5	$\chi^2=2.599$ df=1	79	44.1	59	40.7	
	나무지지	49	46.7	48	58.5		100	55.9	86	59.3	
공간 사용	용지의 1/3미만	10	9.5	11	13.3	$\chi^2=11.782^{**}$ df=3	20	11.0	9	6.2	
	1/3~1/2	29	27.6	13	15.7		33	18.2	32	21.9	
	1/2~2/3	25	23.8	37	44.6		53	29.3	45	30.8	
	2/3 이상	41	39.0	22	26.5		75	41.4	60	41.1	
동지 크기	용지의 1/3미만	54	51.4	50	60.2	$\chi^2=1.776$ df=2	100	55.2	72	49.7	
	1/3~1/2	28	26.7	16	21.3		36	19.9	27	18.6	
	1/2 이상	23	21.9	17	20.5		45	24.9	46	31.7	
나는 새	아니오	72	68.6	65	78.3	$\chi^2=2.225$ df=1	147	81.2	118	80.8	
	예	33	31.4	18	21.7		34	18.8	28	19.2	
양육 활동	아니오	81	77.1	61	73.5	$\chi^2=.334$ df=1	105	58.0	79	54.5	
	예	24	22.9	22	26.5		76	42.0	66	45.5	
부모새와의 거리	부모새 없음	46	43.8	39	47.0	$\chi^2=.2278$ df=2	69	38.1	50	34.2	
	동지와 떨어짐	34	32.4	19	22.9		45	24.9	44	30.1	
	한동지	25	23.8	25	30.1		67	37.0	52	35.6	
알	없음	74	74.0	49	59.0	$\chi^2=4.609^*$ df=1	127	72.6	88	61.5	
	있음	26	26.0	34	41.0		48	27.4	55	38.5	
새	없음	52	52.0	43	51.8	$\chi^2=.001$ df=1	76	43.4	63	44.1	
	있음	48	48.0	40	48.2		99	56.6	80	55.9	
부모새	없음	43	43.0	39	47.0	$\chi^2=.292$ df=1	72	41.1	47	32.9	
	있음	57	57.0	44	53.0		103	58.9	96	67.1	
새가족	없음	78	78.8	48	57.8	$\chi^2=9.308^{**}$ df=1	117	67.2	67	47.5	
	있음	21	21.2	35	42.2		57	32.8	74	52.5	
선의 질	약하다	14	13.2	3	3.6	$\chi^2=5.574$ df=2	28	15.5	4	2.7	
	보통	69	65.1	63	75.9		118	65.2	118	80.8	
	강하다	23	21.7	17	20.5		35	19.3	24	16.4	
나무	안그림	68	64.8	38	45.8	$\chi^2=6.792^{**}$ df=1	87	48.1	72	49.7	
	그림	37	35.2	45	54.2		94	51.9	73	50.3	
색의 수	1~3색	54	50.9	37	44.6	$\chi^2=1.591$ df=2	54	29.8	44	30.1	
	4~6색	43	40.6	41	49.4		98	54.1	78	53.4	
	7색 이상	9	8.5	5	6.0		29	16.0	24	16.4	

* p<.05, **p<.01, ***p<.001

남학생의 경우 부애착 정도에 따라서는 등지배치, 공간 사용, 알 표현, 전체 새가족 표현, 나무표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등지배치는 부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은 용지의 중심에 등지를 그린 경우가 86.9%인 반면, 애착정도가 높은 집단은 75.6%로 나타나 애착정도가 높은 사람이 등지를 용지의 가장자리에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chi^2=3.814, p<.05$). 공간사용은 $p<.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chi^2=11.782$).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용지의 $\frac{1}{2}$ ~ $\frac{1}{3}$ 의 크기는 23.8%, $\frac{1}{3}$ 이상의 크기는 39.0%로 나타났으며,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frac{1}{2}$ ~ $\frac{1}{3}$ 의 크기는 44.6%, $\frac{1}{3}$ 이상은 26.5%로 나타나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용지 사용을 적절하게 하는 경향이 높았다. 알의 표현도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chi^2=4.609$),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은 알을 그리는 비율이 26.0%인 반면, 높은 집단에서는 41.0%가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새가족을 그리는 경우도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은 21.2%인 반면 애착정도가 높은 집단은 42.2%가 새가족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9.308, p<.01$). 나무표현에서도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나무를 그리는 비율이 35.2%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54.2%가 나무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6.79, p<.01$).

여학생의 경우는 부애착 정도에 따라 알, 전체 새가족 표현, 선의 질, 나무표현에서 차이가 있었다. 알 표현에서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은 알을 그리는 비율이 27.4%인 반면, 높은 집단에서는 38.5%가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374, p<.05$). 전체 새가족 표현에서도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은 32.8%인 반면 애착정도가 높은 집단은 52.5%가 새가족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12.47, p<.001$). 선의 질에 있어서는 부애착 정도가 낮은 집단은 선을 약하게 그린 비율이 15.5%, 보통 65.2%, 강한선이 19.3%로 나타난 반면, 부애착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약한 선이 2.7%, 보통 80.8%, 강한 선이 16.4%로 나타나($\chi^2=16.49, p<.001$), 부애착정도가 높은 집단이 선의 필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애착 정도에 따른 BND의 반응특성은 표 7에서와 같이 남학생은 등지내용, 등지배치, 나무지지, 알, 전체 새가족 표현, 선의 질, 나무표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등지내용은 모애착 정도에 따라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chi^2=11.228$). 모애착 정도가 낮은 집단은 빈 등지를 그리는 비율이 16.8%, 새만 그리는 비율이 41.6%, 알과 새를 같이 그리는 비율이 17.7%인 반면, 애착정도가 높은 집단은 빈 등지를 그리는 비율이 6.3%, 새만 그리는 비율이 36.7%, 알과 새를 같이 그리는 비율이 36.7%로 나타나 애착정도가 높은 집단이 등지 안에 새나 알을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 등지배치는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chi^2=5.814$).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중심에 그리는 비율이 87.9%, 가장자리에 그리는 비율이 12.1%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중심에 그리는 비율이 74.0%, 가장자리에 그리는 비율이 26.0%로 나타났다. 나무지지유무는 애착이 낮은 집단은 지지가 없는 경우가 54.5%인 반면, 애착이 높은 집단은 나무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경우가 60.3%로 나타나 애착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chi^2=3.989, p<.05$). 알을 그리는 비율은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23.1%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44.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9.781, p<.01$). 전체 새가족을 그리는 비율은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19.4%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46.8%가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chi^2=15.736, p<.001$)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용지에 알과 새가족 전체를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선의 질은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보통의 선이 60.2%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83.5%가 보통의 필압으로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12.352, p<.01$). 나무표현에서도 애착수준이 낮은 사람은 나무를 그리는 경우가 35.4%로 나타난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사람은 55.1%가 나무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311, p<.01$).

여학생의 경우는 등지배치, 공간사용, 등지크기, 알표현, 새가족표현, 선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배치는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중심에 그리는 비율이 80.2%, 가장자리에 그리는 비율이 19.8%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중심에 그리는 비율이 64.4%, 가장자리에 그리는 비율이 35.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9.531, p<.01$). 공간사용은 $p<.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chi^2=12.379$).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용지의 $\frac{1}{3}$ 미만의 크기 11.7%, $\frac{1}{2}$ ~ $\frac{1}{3}$ 의 크기는 21.9%, $\frac{1}{3}$ 이상의 크기는 42.3%로 나타났으며,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frac{1}{3}$ 미만은 5.0%, $\frac{1}{2}$ ~ $\frac{1}{3}$ 의 크기는 39.7%, $\frac{1}{3}$ 이상은 41.3%로 나타나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용지 사용을 적절하게 하는 경향이 높았다. 등지크기에서는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용지크기의 $\frac{1}{3}$ 미만이 57.7%, $\frac{1}{2}$ 이상이 23.0%로 나타난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frac{1}{3}$ 미만이 46.7%, $\frac{1}{2}$ 이상이 37.5%로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알을 크게 그리는 경향이 더 많았다($\chi^2=7.727, p<.05$). 알을 그리는 비율은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26.6%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43.3%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chi^2=9.781, p<.01$), 전체 새가족을 그리는 비율도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29.4%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59.3%가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chi^2=15.736, p<.001$)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용지에 알과 새가족 전체를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선의 질은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은 약한 선이 13.8%, 보통의 선이 67.9%인 반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은 약한 선이 2.5%, 보통의 선이 81.0%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12.002, p<.01$).

<표 7> 모 애착정도에 따른 새동지화 반응특성의 차이

지표	남학생				통계량	여학생				통계량	
	낮은 집단		높은 집단			N	%	N	%		
동지 내용	빈둥지	19	16.8	5	6.3	$\chi^2=11.228^*$ df=3	20	10.2	4	3.4	
	알만	27	23.9	16	20.3		39	19.9	20	16.9	
	새만	47	41.6	29	36.7		69	35.2	47	39.8	
	알과 새	20	17.7	29	36.7		68	31.7	47	39.8	
동지 모습	위	52	46.8	42	53.8	$\chi^2=2.506$ df=1	83	42.8	53	45.3	
	옆	59	53.2	35	44.9		111	57.2	64	54.7	
동지 배치	중심	94	87.9	57	74.0	$\chi^2=5.814^*$ df=1	154	80.2	76	64.4	
	가장자리	13	12.1	20	26.0		38	19.8	42	35.6	
기운 동지	아니오	109	97.3	75	94.9	$\chi^2=.746$ df=1	187	95.4	110	90.9	
	예	3	2.7	4	5.1		9	4.6	11	9.1	
바닥 유무	아니오	30	27.3	32	40.5	$\chi^2=3.653$ df=1	50	25.5	25	20.7	
	예	80	72.7	47	59.5		146	74.5	96	79.3	
나무 지지	없음	61	54.5	31	39.7	$\chi^2=3.989^*$ df=1	86	44.1	45	37.8	
	나무지지	51	45.5	47	60.3		109	55.9	74	62.2	
공간 사용	용지의 1/3미만	14	12.4	8	10.3	$\chi^2=7.244$ df=3	23	11.7	6	5.0	
	1/3~1/2	33	29.2	11	14.1		43	21.9	17	14.0	
	1/2~2/3	31	27.4	31	39.7		47	24.0	48	39.7	
	2/3 이상	35	31.0	28	35.9		83	42.3	50	41.3	
동지 크기	용지의 1/3미만	62	55.4	45	57.0	$\chi^2=2.904$ df=2	113	57.7	56	46.7	
	1/3~1/2	30	26.8	14	17.7		38	19.4	19	15.8	
	1/2 이상	20	17.9	20	25.3		45	23.0	45	37.5	
나는 새	아니오	82	73.2	57	72.2	$\chi^2=.026$ df=1	162	82.7	94	77.7	
	예	30	26.8	22	27.8		34	17.3	27	22.3	
양육 활동	아니오	86	76.8	57	72.2	$\chi^2=.529$ df=1	114	58.5	63	52.1	
	예	26	23.2	22	27.8		81	41.5	58	47.9	
부모새와의 거리	부모새 없음	52	46.4	33	41.8	$\chi^2=1.688$ df=2	76	38.8	38	31.4	
	동지와 떨어짐	34	30.4	21	26.6		50	25.5	37	30.6	
	한 둘지	26	23.2	25	31.6		70	35.7	46	38.0	
알	없음	83	76.9	43	55.1	$\chi^2=9.781^{**}$ df=1	138	73.4	68	56.7	
	있음	25	23.1	35	44.9		50	26.6	52	43.3	
새	없음	58	53.7	39	50.0	$\chi^2=.249$ df=1	84	44.7	50	41.7	
	있음	50	46.3	39	50.0		104	55.3	70	58.3	
부모새	없음	48	44.4	34	43.6	$\chi^2=.013$ df=1	76	40.4	39	32.5	
	있음	60	55.6	44	56.4		112	59.6	81	67.5	
새가족	없음	87	80.6	41	53.2	$\chi^2=15.726^{***}$ df=1	132	70.6	48	40.7	
	있음	21	19.4	36	46.8		55	29.4	70	59.3	
선의 질	약하다	13	11.5	5	6.3	$\chi^2=12.352^{**}$ df=2	27	13.8	3	2.5	
	보통	68	60.2	66	83.5		133	67.9	98	81.0	
	강하다	32	28.3	8	10.1		36	18.4	20	16.5	
나무	안그림	73	64.6	35	44.9	$\chi^2=7.311^{**}$ df=1	100	51.0	53	44.2	
	그림	40	35.4	43	55.1		96	49.0	67	55.8	
색의 수	1~3색	58	51.3	35	44.3	$\chi^2=1.063$ df=2	62	31.6	31	25.6	
	4~6색	46	40.7	38	48.1		107	54.6	67	55.4	
	7색 이상	9	8.0	6	7.6		27	13.8	23	19.0	

* p<.05,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애착안정성 진단도구로서의 새등지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청소년을 성별로 나누어 부·모애착수준별로 BND의 애착지표의 반응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등학생 1, 2학년생 525명이었으며, 부모애착 질문지와 새등지화 그림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의 경우 새등지화의 애착지표들이 부 애착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71.3%였으며, 새등지화에서 등지중심배치, 새가족 표현, 나무표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새등지화의 변인들이 모 애착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67.2%였으며, 새등지화에서 등지바닥, 중심배치, 알 표현, 새가족 표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새등지화의 변인들이 부 애착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64.1%였으며, 새등지화에서 알 표현, 새가족 표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의 판별력은 70.8%였으며, 새등지화에서 빈등지, 중심배치, 가장자리 배치, 등지크기, 알 표현, 새가족 표현, 색의 수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새등지화는 남학생의 경우 부애착을 여학생의 경우는 모애착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애착 수준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등지배치, 공간사용, 알 표현, 전체 새가족 표현, 나무표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알, 전체 새가족 표현, 선의 질, 나무표현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등지를 가장자리에 그리며, 용지에 알과 전체 새가족, 나무를 그리는 비율이 높았고 필암은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애착 수준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등지내용, 등지배치, 나무지지, 알, 전체 새가족 표현, 선의 질, 나무표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등지배치, 공간사용, 등지크기, 알표현, 새가족표현, 선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등지 안에 알과 새를 그리는 비율이 높았으며, 등지를 가장자리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간을 크게 사용하고, 등지를 크게 그리며, 용지에 알과 새가족을 그리는 비율이 높고, 나무를 그리며, 선의 질은 보통수준인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미애(2004)의 연구에서 애착수준에 따라 나무에 의한 지지, 바닥유무, 공간사용, 등지크기, 선의 질, 아기 또는 부모새들이 있는가 하는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애착점수가 낮은

집단은 등지가 비어있고, 색 사용이 거의 없으며, 주변을 둘러싸거나 지지해주는 환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Kaiser(1996)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재향군인병원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Francis 등(2003)의 연구에서도 안정된 참여자들은 나무 안에 등지가 있고, 등지에 새를 그렸고, 전체 새 가족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나무를 그리고 나무에 의해 등지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 모 안정애착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은 나무는 양육적인 모성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으로(Matthews, 1986, Kaiser, 1996 재인용) 새등지화에서 나타나는 나무는 보호의 또 다른 특성으로 볼 수 있다(Kaiser, 1996)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공간사용과 등지 크기에 있어서 모 애착수준이 높은 사람이 애착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공간 사용을 적절하게 하며 등지를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으며(이경님, 2002; 전효정, 2005; Armsden & Greenberg, 1987; McCormick & Kennedy, 1994), 그림의 크기는 피험자의 자기존중감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지의 약 2/3에 해당하면 자신감이나 자신에 대해 적절감을 유지한다는 점(신민섭 외, 2002)은 본 연구에서 애착수준이 높은 사람이 공간사용을 용지의 $\frac{2}{3}$ 에서 %정도의 크기로 그리는 비율이 높으며 등지를 크게 그린다는 점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BND 애착지표에 있어 부·모애착수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은 등지배치, 알 표현, 전체 새가족 표현, 나무표현, 선의 질이었다. 등지배치가 중심보다는 가장자리에 위치한 경우 오히려 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은 모애착의 경우 애착수준이 높은 사람이 나무를 그리며, 나무에 의해 등지가 지지 받고 있는 것으로 그리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무가 용지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나무의 가지에 등지가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알이나 전체 새가족을 그리는 경우 부모애착수준이 높다는 것은 Kaiser(1996)의 연구에서 부모와 아기새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과 일치한다. 알을 보호하는 새가 없다는 것은 아동기 동안이나 현재의 관계에서 보호자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개인의 경험을 나타낸다는 Francis 등(2003)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선의 질에 있어서는 부모애착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필암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암은 피검자의 에너지 수준, 긴장정도, 공격성 및 충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필암이 강할 경우 현재 상당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선이 약할 경우 적응을 잘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지가 상실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신민섭 외, 2002; Buck,

1948; Hammer, 1969; Jolles, 1964; Machover, 1949, 공마리아·김동연·최외선, 2002 재인용) 본 연구에서 애착수준이 높은 사람이 필압이 적절하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새동지화가 애착성진단도구로서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애착지표에서 안정애착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새동지화가 애착안정성을 확인하고, 애착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처치와 사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Francis et al., 2003; Kaiser, 1996; Sheller, 2007)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ND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고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 본 연구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BND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공간사용, 등지크기, 선의 질, 등지내용 등은 반응특성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 표집에 있어 일반집단만이 아닌 애착장애를 보이고 있는 집단과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대구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상충을 확대시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매체, 지시사항, 애착지표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초기의 연구로 탐색적 연구로 볼 수 있으나 추후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새동지화가 애착안정성 진단을 위한 투사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진단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과 BND의 관계를 밝혀 질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그림검사를 통하여 거부감 없이 애착수준을 진단할 수 있고 나아가 상담 및 치료로 연결시킬 수 있어 상담 및 심리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부모애착, 새동지화, 타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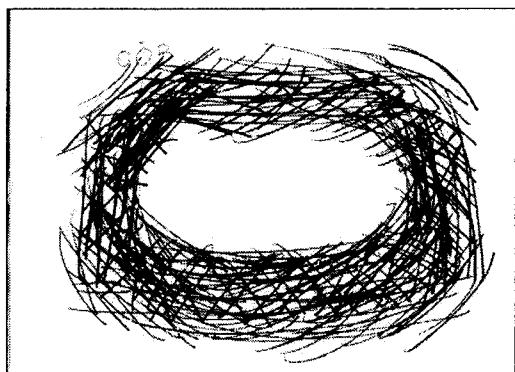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공마리아, 김동연, 최외선(2002). HTP와 KHTP 심리진단법. 대구: 동아문화사.
- 김수현, 김갑숙(2007). 성별에 따른 중학생 16PF 성격특성과 인물화 성격 요인과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14(3), 509-532.
- 김순란, 최외선(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빗속의 아이' 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11(2), 185-210.
- 김민동(2003).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2006). 청소년의 우울과 빗속의 사람그림 상관관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1.
- 배지영(2007). 대학생의 애착 및 사회적 지지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6). *빌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신민섭 외(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 유안진, 이점숙(2005).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 관리학회*, 제38차 추계학술대회, 295.
- 이경님(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님(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0.
- 이미애(2004). 미술치료가 불안정애착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효정(2005).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 과정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3(9), 85-96.
- 정현희(1994).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법을 통한 부모 자녀 친밀도 측정의 타당화 연구. *미술치료연구*, 1(1), 39-46..
- 정현희, 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 탁영란, 이은영(2004).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건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0(1),
- 홍주영, 도현심(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Ainsworth, M. D. S., & Eichberg(1992). Effects on

- infant-mother attachment of mother's unresolved loss of an attachment figure or other traumatic experience. In P. Marris, J. Stevenson-Hinde, & C. Parke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New York: Routledge.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 Brown, F. G.(1976). *Principles of Education and Psychological Testing*. Rinehart & Winston.
- Francis, D. M., Kaiser, D., & Deaver, S.(2003).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security in the Bird's Nest Drawings of clients with substance abuse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20(3), 125-137.
- Hetherington, E. M. & Parke, R. D.(1993). *Child psychology: A contemporary viewpoint*(4th ed). New York: McGraw Hill.
- Kaiser, D. H.(1996). Indications of attachment security in a drawing task. *The Arts in Psychotherapy*, 23(4), 333-340.
- Kaiser, D. H., Holt, E. S., & Francis, D.(2001, November). The Bird's Nest Drawing: Using attachment theory in art therapy practice. Paper presented at the 32nd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Conference*, Albuquerque, NM.
- Kenny, M.(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No.1, pp.17-29.
- Main, M., & Goldwyn, R.(1988).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cCormick, C. B.,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Paulhus, D. L. (1981). Control of social desirability in personality inventories : Principle-Factor Dele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1.
- Sheller, Sandy(2007). Understanding insecure attachment: A study using children's Bird Nest imagery.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24(3), 119-127.

(2008. 6. 30 접수; 2008. 11. 7 채택)

<부록>



[그림 1] 낮은 애착수준



[그림 2] 높은 애착수준